

九死
十一
生

2023

GGB 21 $\frac{6}{12}$

<구사십일생>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4. [18~20] tip
 5. [25~28] 도표 tip
 6. [35] 무관한문장, [43~45] 장문
 7. [30] [42]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8. [31~34] 빈칸추론
 9. [36~39] 순서/삽입
 10. [21] [29] [40] [41] 나머지 여러 문제들
- + 마지막으로

I. 들어가기에 앞서

수능까지 며칠 남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능이 남은 1주일 동안 무엇을 할지 헤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은 1주일동안 영어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점수를 눈에 띄게

상승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점수를 올릴 수만 있다면 된다.

설령 그게 찍기 일지라도. 그렇다면 이 찍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단순한 찍기방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다.

수능영어 시험은 문제 유형과 문제 배치인 시험지 틀이 정해진 시험이다.

문제 유형에 따라 평가원에선 정답으로 내기 어려운 번호가 존재하고 반대로 자주 나오는 번호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나 순서삽입에서 ①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칸추론과 같은 다른 유형에서 앞번호의 비율이 높은 것처럼. 18~20번의 답이 ①,②,③에 86%이상 집중된 것처럼.

또한 이전 선택지의 정답번호에 따라 다음 문제의 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유형도 존재한다. 예를들면, 순서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B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문제가 C로 시작할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이.

필자는 현재 영어시험의 틀이 고정된 19학년도 수능부터 선지 분포를 분석하여

답이 되었던, 그리고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동강령 및 태도를 알려주

고, 통계에 기반한 선지 판별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을 단축시키며, 찍더라도 역대 평가원의

정답이 뒷받침해주는 찍기를 통해 영어 점수의 단기간의 비약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도록 돕

고자 한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19학년도 수능부터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다.

+ 작년 영어 짭기 후기 일부

한방에간다리 빈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완벽한 파이널은 없음

2022.10.26
20:01:54

MUNGWA

6평 76 9평 81 시험 당일 새벽 5시에 핑학모 68나오고 멘탈 나가서 이거 봤는데 7문제 안 풀고도 수능 90받았습니다

2021.11.30
17:18:42

작수 영어 **ggb** 짭특으로 4에서 2됨

개 레전드였는데 한 28개 풀고 17개 짭었는데 ㅋㅋㅋ



12 경제 · 1160444 · 11/09 08:07 · MS 2022

이거 하나가 사실 웬만한 인강보다 나은듯 ..

좋아요 **31** · 답글 달기 · 신고



15 sdij03 · 988159 · 21/11/19 15:06 · MS 2020

9모 5등급 전 날에 급하게 사서 밤에 보고 잤는데 기억 안 나서 영어 예비령 전까지 예열지문 안 보고 짭기 팁 숫자만 지니 외우다가 마지막에 빈칸순습 8개 다 짭었는데 31 34 37 39 4개 맞았어요ㅋㅋㅋㅋ 덕분에 영어 86 떠서 최저 맞췄습니다 제 순결을 가져가주세요 GGB



40 빵도아 · 882268 · 21/11/18 19:40 · MS 2019

심리적 안정감 지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 · 답글 달기 · 신고



6 승허니디 · 1083132 · 21/11/19 11:08 · MS 2021

3모 4등급

4모 3등급

6모 3등급

7모 3등급

9모 3등급

10모 3등급

구사십일생 결제

수능 97점 32번틀림



12 Aic · 955687 · 21/11/18 20:07 · MS 2020

올해 영어 100시간도 안한거 같은데 92 나옴 가성비 러ㅇ 스테치

좋아요 **5** · 답글 달기 · 신고



42 붕어싸10000코 · 1027132 · 21/11/18 22:56 · MS 2020

9모 80-> 수능 90 사랑합니다 진짜 고1이후로 1등급 처음인듯

좋아요 **3** · 답글 달기 · 신고



12 연세대학 21학번 · 915938 · 21/11/18 23:44 · MS 2019

도움 많이 됐습니다 7개짭어서 4개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 · 답글 달기 · 신고



20 수능2주남기고가임한재수생 · 1091513 · 21/11/19 02:50 · MS 2021

와 님 레전드..... 저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놓고 한번 보고 말았는데 시험 때 멘탈 갈려서 손 떨리는 와중에 님이 짭기특강에 썼던 논리?가 생각나서 그거 토대로 열심히 짭었더니 92 나옴. 울면서 풀었는데 님 아니었으면 3등급 나왔을듯요 감사합니다....



51 Shean.T(선티) · 253967 · 11/03 16:26 · MS 2008

현강에서 자꾸 짭기특강 안 해주시냐고 하는데..

약간의 리스크를 걸더라도 진짜 꼭 필요하면

이거 보라고 하겠습니다 ㅎㅎ

좋아요 **118** · 답글 달기 · 신고

[수능자유게시판 >](#)

오르비 구사십일생 저자분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7 시계레르니 · 1100202 · 10/22 23:55 · MS 2021

작년에 이거 아니었으면 순살나가리되서 3뜨는거였는데 ㅋㅋㅋㅋ



10 그날들 · 996441 · 10/22 20:03 · MS 2020

이걸로 1됨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홀수형)

1	⑤	2	①	3	①	4	⑤	5	①
6	②	7	③	8	④	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⑤	17	⑤	18	①	19	②	20	①
21	②	22	①	23	③	24	②	25	⑤
26	⑤	27	④	28	④	29	⑤	30	⑤
31	②	32	③	33	①	34	②	35	③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④	43	③	44	⑤	45	④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홀수)

1	⑤	2	②	3	①	4	④	5	②
6	④	7	①	8	④	9	③	10	④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⑤
16	③	17	⑤	18	②	19	⑤	20	③
21	②	22	①	23	⑤	24	①	25	④
26	③	27	④	28	③	29	④	30	③
31	①	32	⑤	33	①	34	②	35	④
36	②	37	⑤	38	⑤	39	④	40	①
41	②	42	③	43	③	44	③	45	②

영어(짝수형)

1	①	2	①	3	③	4	⑤	5	①
6	②	7	①	8	④	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9	①	20	②
21	②	22	①	23	②	24	③	25	⑤
26	⑤	27	④	28	④	29	⑤	30	⑤
31	②	32	③	33	②	34	⑤	35	③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④	43	③	44	⑤	45	④

영어(짝수)

1	⑤	2	④	3	②	4	④	5	②
6	④	7	①	8	③	9	③	10	④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⑤	18	③	19	①	20	⑤
21	①	22	②	23	①	24	⑤	25	④
26	③	27	④	28	③	29	④	30	③
31	②	32	①	33	⑤	34	②	35	④
36	②	37	⑤	38	⑤	39	④	40	①
41	②	42	③	43	③	44	③	45	②

듣기, 18-24번 문제, 빈칸추론에서의 선지 배치가 주로 바뀐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짝수형의 선지 답 개수가 괴랄해지기도 한다.

21수능의 듣기를 제외하고 답 개수를 ①,②,③,④,⑤ 번 순으로 세어보면

홀 : 46666

짝 : 26767

이었고, 평가원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식해서인지 22수능은

홀 : 56755

짝 : 56755

로 동일했다.

근데 어차피 영어에서는 답 개수를 세서 찍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에 홀수형 짝수형의 답 개수만 동일하다면, 홀수 짝수에 대한 유불리는 크게 없다.

또한 통계를 내어보면 홀수형과 짝수형에 대해서 찍기에 대한 차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보인다.

4. [18~20] tip

	18	19	20
1911홀	3	1	1
1911짜	3	1	1
2006	2	3	1
2009	3	1	5
2011홀	5	1	1
2011짜	3	1	1
2106	1	2	3
2109	3	1	2
2112홀	1	2	1
2112짜	3	1	2
2206	3	1	1
2209	2	3	1
2211홀	2	5	3
2211짜	3	1	5
2306	4	1	2
2309	3	4	1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홀	18	2	3	5	1	1
	19	6	2	2	1	1
	20	7	2	2	0	1
홀	18	86%			6%	8%
	19					
	20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짜	18	1	2	8	1	0
	19	8	1	2	1	0
	20	6	3	1	0	2
짜	18	88%			6%	6%
	19					
	20					

18~20번 문제는 목적 파악, 심경 변화 파악,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이

쉽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놀랍게도

선택지 ①,②,③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문제를 풀에 있어서 ①,②,③을 위주로 선지를 판별

한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 ①,②,③ 위주로 보도록 하자.

6. [35] 무관한문장, [43~45] 장문

	35	43	44	45
1911홀	4	2	5	2
1911짝	4	2	5	2
2006	4	5	5	4
2009	4	5	2	2
2011홀	3	3	2	3
2011짝	3	3	2	3
2106	4	5	2	2
2109	3	2	4	5
2112홀	3	3	5	4
2112짝	3	3	5	4
2206	4	3	2	5
2209	3	4	1	4
2211홀	4	3	3	2
2211짝	4	3	3	2
2306	3	3	5	3
2309	4	5	2	3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공통	35	0	0	5	7	0
		0%	0%	43%	57%	0%

유형	번호	①	②	③	④	⑤
공통	43	0	2	5	1	4
	44	1	5	1	1	4
	45	0	4	3	3	2
	43	0%	58%	42%		
	44	8%	43%	8%	8%	33%
	45	0%	34%	25%	25%	16%
	43~45	3%	97%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는 절대적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시험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질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 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다면 ①, ⑤번은 정답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내어보면 ①, ⑤번에는 정답이 나온적이 없었다. 하지만 ②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현재까지 답은 ③번 또는 ④번뿐 이었다.

[43-45]의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43번 문제이다. 43번 문제는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번호	①	②+③	④+⑤
시작	(B)	(C)	(D)
43	0%	58%	42%

- ① (B) - (D) - (C)
- ② (C) - (B) - (D)
- ③ (C) - (D) - (B)
- ④ (D) - (B) - (C)
- ⑤ (D) - (C) - (B)

위의 통계를 보면 알다시피 ①번이 답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첫 문단 (A) 다음에 올 (B), (C), (D) 중에서 (B)가 첫 번째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A)를 읽고 (B)는 넘기고 (C) or (D)를 먼저 읽도록 하자.

+) [43~45]을 다 합쳐도 ①번이 답이 된 적은 단 3%에 불과하다.